

통권 제 251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9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8
구경의 법



살다 보면
흘러간 물




생각의 열매
생명의 무게는 같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충지중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과 사상편 P.44

부처님같이 살면

아축불과 같이 살면 보리구할 마음나고
보생불과 같이 살면 공덕모여 장엄하고
미타불과 같이 살면 지혜 열려 안락하고
성취불과 같이 살면 대정진에 고풍 여윈다.



불교 이야기 _ 10

동행 _ 59

나만의 빛, 모두의 빛 _ 72

육자대명다라니 六字大明陀羅尼
④대승장엄보왕경
_ 원당 정사

‘침묵沈黙’의 진정한 가르침
_ 탁상달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_ 한국전통등연구원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0 불교 이야기
- 13 지장 스님의 향유
- 16 경전에서 찾은 지혜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6 절기 이야기
- 28 고전 속으로
- 32 문화재 해설
- 34 산책
- 36 살다보면
- 41 생각의 열매
- 44 지혜의 뜨락
- 47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 52 십선성취
- 56 마지막 공부
- 59 동행
- 64 우리 절 노래꽃
- 66 서원당 안의 불교
- 70 금쪽상담소
-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_구경의 법 - 김천
- 육자대명다라니 六字大明陀羅尼_④대승장엄보왕경 - 원당 정사
- 눈뜨 봉사 - 지장 스님
- 말을 참지 못하면 몸을 망친다 - 불교총지종 법장원
- 중생심 衆生心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 임진수
- 밤 기운 내려 이슬이 맺힌다 백로白露 - 위드다라마 편집실
- 어머니의 뉴트로 - 최두현
- 화조산수도첩 - 위드다라마 편집실
- 자작나무 - 김대곤
- 흘러간 물 - 이옥경
- 생명의 무게는 같다 - 위드다라마 편집실
- 이슬은 불자였을 듯 - 방귀희
- 자비실천의 자세 - 하현주
- 텔레파시 - 남혜 정사
- 얼마를 써낼 수 있는가 - 유소림
- ‘침묵沈黙’의 진정한 가르침 - 탁상달
- 좋은 인연 - 묘원화 전수
- 태장계 만다라 불단佛壇의 문양紋樣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위드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바닷가재의 탈피

바닷가재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벗습니다.

이때 껍질을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일찍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닷가재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는 동안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치고 성체가 된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속살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 버리고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써야 하는데 이 과정은 사실 끔찍하고 쓰라린 과정입니다.

얇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 쪼개지면, 바닷가재는 근육을 꼼지락거리려 벌어진 각질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이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 환경에 외피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채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바닷가재는 길게는 100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바닷가재의 장수 비결은 바로 '탈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닷가재와 같이 수없이 찾아오는 인내라는 탈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분명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 8. 8>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20화 - 법계와 함께III

현실에서 삼밀을 행해 즉신성불하고 현세를 밀엄정토로 이루자는 법문을 여러 고승대덕의 계송을 인용하여 전했다.

이우주의 형형색색 법신이불 신밀이요
이우주의 모든음성 법신구밀 설법이며
형색음성 치밀해서 활동하는 그진리는
모든것이 우주진리 법신여래 그삼밀이
분화하여 있으므로 법계법신 의밀이라.
진언행자 삼밀행은 모든진리 체득하는
진언비밀 보리도며 즉신성불 계단이라
여래삼밀 행자삼밀 일여평등 한것으로

행자개체 연기하여 평등법계 자증한다.

만물의 근본은 걸림이 없어 늘 마음을 모아 수행하여 삼밀을 성취하면, 사종의 만다라가 떨어지지 않아 삼밀로 부처님의 가지력이 즉시 드러나니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 몸으로 곧 성불을 이룬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손발을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신밀이 아님이 없고, 입을 열어 소리 내는 모든 말이 구밀이며, 마음을 일으켜 신념을 세우는 모든 것을 의밀이라 하니 언행과 마음 씀을 수행으로 삼고 밀교행자로서 할 바를 행할 때 현실이 불국정토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한 가지,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의 경험은 어떤 경우에도 대성사가 화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꽤나 불편할 만한 일이 벌어져도 태연함을 잃지 않았고 평안함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니 화가 나서 날뛰던 이도 대성사가 몇 마디 말을 건네면 곧 조용해지는 일도 있었다. 특히 서원당 주변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가 고요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 그 이유를 계송으로 가르쳤다.

서원당은 금강법계 비로자나 궁전이라

정보리심(淨菩提心) 아축불(阿闍佛)은 그동방에 항상있고

만법능생 萬法能生 보생불 寶生佛은 그남방에 항상있고
 설법단의 說法斷疑 아미타불 阿彌陀佛 그서방에 항상있고
 이리원만 二利圓滿 성취불 成就佛은 그 북방에 항상 있다.
 아축불과 같이살면 보리구할 마음나고
 보생불과 같이살면 공덕모여 장엄하고
 아미타불 같이살면 지혜열려 안락하고
 불공성취불 같이살면 대정진에 고여인다.

서원당뿐 아니라 현세 모든 곳이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니
 어디서나 보리를 구하고 공덕을 모으며 지혜를 다해 대정진에
 나서 모든 고를 여의자는 당부이다. 총본산에 앉아 있을 때 늘
 손에는 염주를 들고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는 진언을 멈추지 않
 았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눈으로는 법계를 꿰뚫어 보며 입
 으로는 진언을 외우는데, 진언의 공덕을 호지국가안락인민보성
 다라니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일체 모든 국토 중에 다라니가 유포되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용들은 일체선신 옹호받고 모든 세력 자재하며 왕자비후 재상
 보신 장병들이 안락하며 내외원적 모계간사 악질기근 한재수해
 악수독룡 이와 같은 일체 모든 불상사는 모두 단제 소멸되고 재
 물곡식 풍요하여 고장모두 가득차고 화과모두 영성하여 인물들



1976년도 4월 23일 제7회 강공 후 국회의사당 견학

이 안락하다.”

다라니를 외는 일로 국토의 모든 이가 선신의 옹호를 받아 국
 민 모두 평안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행복
 보다 일체 중생이 행복을 얻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마음에 새기
 며 다라니를 지송하라는 것이 대성사의 가르침이었다. 특히 관
 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훴’의 공덕을
 강조하여 남긴 글이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항상 수
 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만일 이
 주문을 염념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 다 소멸된다. 대승장
 엄보왕경에 설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
 각하는 사람의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게 되며, 만약 사람
 이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얻으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

을 것이다. 또 이 본심진언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닌 자도 또한 탐진치 삼독병에 물들지 않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이거나 지니는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생명이 속히 보살의 위를 얻어 영영 생로병사 윤회하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않게 된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으며,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본심의 진언을 외워 관세음보살이 나와 함께 하며 내가 관세음보살을 드러낸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이 무량함을 밝혔다. 그리고 본심주를 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마음에 새겨 관세음보살의 본심대로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임을 강조했다. 이는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넘어 관세음보살의 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옴마니반메훔을 송하고 염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다. 옴은 회사, 마는 계행, 니는 마음을 낮추는 하심_{下心}, 반은 용맹, 메는 묵념, 훔은 지혜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묵념하면 천재만액을 소멸할 수 있다.

이 심인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은 백미와 같아서 한 번 생각하면 착한 복을 얻게 되니 목숨 한 번 살려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칠대 중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뱃속에 있는 벌레 등 일체 유정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으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외도의 사술이 아니다.

좋은 결과가 오는 육행은 제일 지혜, 제이 묵념, 제삼 용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사이니,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총지중에서 실행하는 수행법은 불경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 같은 행동을 고치고, 회사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된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 “마치 깨끗한 곡식을 자기 집으로 거둬들여서 그릇에 가득 차도록 채워 넣고 햇볕에 쬐어 말려서 찢고 부채질하여 그 등겨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찢은 쌀만을 거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유가는 저 등겨와 같고, 일체의 유가 가운데 이 육자대명왕은 깨끗하게 찢은 정미와 같습니다.” 라고 설하였다. 육자대명다라니는 마치 곡식 중에서 백미가 으뜸이듯이 모든 진언 중의 최고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일구지 수만큼의 여래가 한 곳에서 천상의 일겁을 지내는 동안에, 의복과 음식, 앉고 누울 때 펴는 기구, 탕약과 온갖 쓰이는 물건들을 여러 가지로 저 모든 여래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또한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 수량에는 미칠 수가 없느니라.”라고 육자대명다라니가 지니는 공덕이 다른 어떤 공덕보다도 한량이 없음을 설하고 있으며,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제개장보살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얻기를 원하면서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탄하고 있다.



진주 화음사 경내에 모셔진 관세음보살 입상

“만일 육자대명다라니를 얻는 자는 불가사의하고 무량한 선정이 서로 응하여 곧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은 것과 같고, 해탈문에 들어가서 열반지를 보게 되며, 탐심과 진심이 영원히 없어져서 법장이 원만하고, 오취의 윤회를 깨고 여러 지옥을 청정하게 하

고, 번뇌를 끊어 없애고, 방생을 구하고, 법미를 원만히 얻어, 일체지지로 연설이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이 진언왕은 일체의 본모라, 그 이름을 생각만 하여도 죄의 더러움이 없어지고 속히 깨달음을 증득한다.”라고 하여 육자대명다라니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처럼 모든 부처를 출생시키는 진언이라고 하였다.

또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만이 아닌 모든 불보살의 대표로서 불리는 것이며, 관자재보살을 통해서 제불보살의 본마음이 육자대명다라니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을 통해서 불보살의 본심과 지송자의 본심이 가지가 되어 해탈을 얻고 업장이 소멸하고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그대는 마땅히 육자대명총지문을 증득하여’라며, 육자대명다라니를 ‘총지(다라니)의 문’이라고 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에는 무수한 의미와 무량한 공덕이 함장되어 있음을 설하고 있다.

예전에 탑골 공원 근처에는 파라솔에 투명 비닐천막을 둘러치고 점을 봐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 앞에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앞날을 보여 달라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 누가 앞을 잘 보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단지 눈으로만 보지 못할 뿐이지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 외부 대상을 인식합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인식하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생활이 불편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눈으로 밖을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면 세상은 시각 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긴 하지만 주관적이고 제한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정작 자신은 어떤 사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로 설명해 줘도 못 보기도 합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 고통의 시작은 이렇게 보는 것에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보고 아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보고 아는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는 미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눈앞의 결과만을 볼 뿐, 넓게 멀리 보지 못해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예쁜 짓을 해도 미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심각한 착각 장애를 안고 삽니다.

소설 「심청전」을 보면 효녀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합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덕으로 아버지 심봉사의 눈이 열린다고 하지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눈뜬 봉사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긴 하는데 표면적인 것을 습관적으로 볼 뿐 그 내면의 실질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기엔 우리가 다 심봉사인 것입니다.



Photo by CHUTTERSNAPO@Unsplash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누가 심청이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에 더 넓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책을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인터넷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눈을 더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눈이 열리는 만큼, 마음과 삶이 덜 괴롭고 덜 고달파집니다. 고민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해탈의 경지는 눈의 콩각지가 벗겨지고 착각 장애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자신의 시력?

혹은 착각 장애 증상부터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환자라고 인정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을 참지 못하면 몸을 망친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로 인하여 짓는 죄업을 ‘십악설’ 가운데 크게 네 가지로 교설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의 신업(身業),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의업(意業), 입으로 짓는 네 가지의 구업(口業)이 그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구업이 열 가지 업 중에 네 가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짓는 죄업이 삼업(三業) 가운데 구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때 아연약이라는 연못가에 두 기러기가 살았는데, 이들은 연못에 사는 한 거북이와 친하게 지냈다. 연못의 물이 마르자, 두 기러기는 친한 친구인 거북이가 반드시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제할 방법을 의논했다. 그리고 거북이에게 말했다.

“이 못물이 자꾸 마르니 그대가 여기에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 둘은 두 끝을 물테니 그대는 중간을 물고 함께 날아갑시다. 그대를 물이 많은 곳으로 데

려다 줄 것이요. 그런데 나무를 물고 날아갈 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아니되요.”

두 기러기가 곧 거북이에게 나무토막을 물게 하여 하늘로 날아갔다. 한참 후 어느 동리 위를 날아갈 때, 이를 보고 동리 아이들이 소리쳤다.

“기러기가 거북이를 물고 간다. 기러기가 거북이를 물고 간다.” 이렇게 떠들자 거북이는 곧 화를 내며, “어째서 기러기가 나를 물고 가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때 입이 벌어지면서 물었던 나무를 놓치고만 거북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를 계승으로 설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도끼가 입안에 있네
그 모든 악한 말로써 스스로 자기 몸 찍네
마땅히 책망할 것을 도리어 칭찬하고
마땅히 칭찬할 것은 도리어 훼방하여
자기가 재앙을 받고 마침내 즐거움 없네

『오분율』 권제25

중생심 衆生心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중생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중생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생(중생)짐승의 순서로 중생(衆生)이라는 한자어가 우리말로 귀화하여 짐승이라는 단어가 됐다. 지금 짐승이란 단어는 동물들을 지칭하며,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동물적인 욕망, 즉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짐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럼, 중생(衆生)과 중생심(衆生心)의 의미는 무엇일까?

넓은 의미로 중생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중생심에 대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중생이 일으키는 미혹한 마음

2. 번뇌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멍한 상태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마음
3. 중생이 본디 갖추고 있는 청정한 성품



Photo by Freestocks@Unsplash

그러므로 중생심은 중생이 가지는 마음을 의미한다. 즉, 중생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중생심의 종류

중생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기, 질투, 탐욕, 인색, 응졸, 이기, 비열, 간악, 흥포, 악독, 잔인, 사특, 간교, 허영, 나태, 거만, 교만, 비굴, 교활, 무례함, 간사함 등과 같은 좋지 않은 마음들과 포용, 이타, 정의감, 의리, 자애, 겸손, 희생 등과 같은 좋은 마음, 그리고 강직, 인내 등과 같은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한 마음 등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사람인 이상 모든 종류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인 이상 모든 종류의 중생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런 중생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인간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성인^{聖人}이거나 미친 사람일 것이다.

중생심과 나

그런데 왜 나는 내 안에 모든 중생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첫째, 이제껏 그런 중생심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비열하거나 이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 대부분은 전쟁터나 기아에 허덕이는 환경과 같은 극한의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환경을 만나기가 힘들다.

둘째, 그런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을 부정하고 다른 마음으로 대치한 경우이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자신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즉, 생각으로 생각을 덮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신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덮는다. 대부분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습관화된 생각의 통로를 만들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큰 뜻으로 작은 마음을 덮는 것이다. 더 큰 이상, 더 큰 뜻으로 작은 마음을 덮는 경우이다. 애국심으로 자신을 희생하

는 의사義士나 열사烈士와 같이 국가를 구한다는 대의大義를 위해 작은 마음들을 덮어가는 경우이다.

앞의 두 경우 모두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한계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면 자신의 좋은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마지막은 큰 뜻 안에 작은 마음이 포함되어 녹아버린다. 이런 큰마음은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중생심의 발생

이런 중생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들은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난다. 내 마음 안에서 저절로 중생심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중생심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자신의 경계에 부딪힐 때 일어난다. 경계란 대상을 전제로 한다. 대상이 존재해야 중생심이 일어나고,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중생심도 차이를 보인다.

즉 대상의 똑같은 행위에 대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행위와 경쟁 관계의 동료가 한 행위는 그 느낌이 다르고 일어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중생심의 중요성

그럼, 왜 중생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중생심을 낱알이 알고, 스스로 그 존재를 인정해야만 자신에게 속지 않는다.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남에게 속지 않으며, 그래야 마음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마음공부는 이런 중생심을 낱알이 느껴서 그런 마음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 것이다.

중생심을 알기 힘든 이유

그런데도 자신의 중생심을 제대로 보고 알기가 힘든 이유가 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존재의 영속성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은 늙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은 죽지 않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반발심으로 젊어지기를 갈구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자신을 속이려고 만들어 낸 마음, 자신의 영속성을 믿는 마음이 중생심이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그런 죽음을 실시간으로

로 믿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중생심이며 어리석은 마음이다. 즉, 중생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생심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깨달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중생심과 수행

수행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작은 깨달음들이 있다. 하지만 그냥 앉아만 있어선 깨달음이 오질 않는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수행이고, 수행을 통해 자신의 중생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중생심에는 수많은 마음이 숨어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마음에는 언제나 이면이 존재하고 그 이면에 붙어있는 것이 중생심이다. 자신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이 중생심인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오직 모를 뿐.” 스스로 안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명상을 한다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완성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행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을 큰 깨달음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공부는 더 멀어져간다. 그렇게 완성됐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중생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생심을 제대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모를 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 것이다.

중생심을 제대로 아는 것은 부동심(不動心)과 더불어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 필요하다. 자신의 중생심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자비심은 일반적인 동정이나 연민심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중생심에 무지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마음은 자비심의 빈틈을 만든다. 또한 앞의 장에서 말한 경계와도 관련이 있다. 경계를 타파하는 것이 중생심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경계를 타파하여 중생심을 남김없이 알아야 진정한 자비심이 생기는 것이다. 즉 자비심의 네 가지, 사무량심(자비회사)에서 마지막 사(捨)의 마음을 갖는 데 필요하고, 이 관문을 뛰어넘어야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

백로 白露

맑고 깨끗한 흰 이슬이 맺힌 풍경, 완연한 가을 기운이 온 대지를 덮고 있다.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 기온이 내려가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로는 도시인들에게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끼게 하는 절기이지만 농촌에서는 가을농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백로 전에는 벼이삭이 패야 한다. 만약 벼이삭이 패지 못하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어, ‘벼이삭이 백로 오전에 패면 먹고 오후에 패면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벼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후에 부는 바람을 관찰해 풍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백로에 바람이 많이 불면 벼농사에 해가 많고 나락이 여물더라도 색이 검게 된다고 믿었다.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이상 크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백로 전에 서리가



Photo by Shakib Uzzaman@Unsplash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충남에서는 늦게 벼를 심었다면 백로 이전에 이삭이 패어야 그 벼를 먹을 수 있고, 백로가 지나도록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는다. 경남에서는 백로 전에 패는 벼는 잘 익고 그 후에 패는 것은 쪽정이가 된다고 알고 있으며, 백로에 벼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기도 한다.

백로는 보통 음력 8월 초순이지만 7월 말에 들기도 한다. 7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 참외나 오이가 잘되며, 8월 백로에 비가 적당히 오면 대풍이라고 여긴다. 또한 백로는 포도가 맛있게 익는 시기인 만큼 백로부터 추석까지는 포도의 당도가 높아 가장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포도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로는 무더위가 물러가 능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시기로 우리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절을 좀 더 보람차고 가치 있게 보내면 좋겠다.

어머니의 뉴트로

최두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人之性情, 皆現於樂 인지성정, 개현어악
 後世之樂, 不及古樂 후세지악, 불급고악
 人之性情, 不古故也 인지성정, 불고고야
 사람의 성품은 음악에 모두 드러난다.
 후세의 음악이 옛 음악보다 못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성품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위백규 魏伯球(1727~1798), 『존재집 存齋集』, 「독서차의 讀書箴義·논어 論語」

뉴트로는 뉴(new)와 레트로(retro)의 합성어이다. 레트로는 복고주의이며 옛것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에 기반한 취향이다. 뉴트로에는 뉴가 붙은 만큼 단순히 옛것에 대한 애호가 아니라 옛것을 가져와 새롭게 지금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보면 레트로와 뉴트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도 굳이 구분하자면 뉴트로에는 옛것의 핵심적인 기능이나 정서를 뼈대로 하면서도 그대로 쓰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이나 디자인을 가미하여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는 가수 임영웅을 좋아한다. 방송국마다 하나씩 나오는 트로트 프로그램, 그리고 불후의 명곡이라는 TV프로그램의 애청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들의 명곡을 부른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 혹은 손주뻘 되는 젊은 사람들이 부른다. 그런 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와 노래들이 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런 노래들을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노래들을 잘 듣지 않는다. 옛 가수들을 보고 배웠으나 아무래도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는, 발달한 음향 기술로 녹음한 젊은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다.

오히려 옛날 노래를 원래 모습 그대로 즐기고자 하는 것은 일부 젊은 사람들이다. 유튜브나 음원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 어떤 이들은 굳이 LP를 사고 플레이어를 사서 수십 년 전에 발매된 옛날 노래를 듣는다. 음질과 편의성을 생각하면 불합리한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는 종종 그렇게 불합리한 그림을 그린다.

레트로와 뉴트로의 의미를 대입해 보면, 어머니는 뉴트로를 즐긴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젊은 사람이 LP를 듣는 것은 레트로일까. 추억과 그리움의 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레트로가 아니다.

영웅시대와 함께한 기적의 시간들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IM HERO THE FINAL

|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



그 시절을 살지 않았으니 추억도 그리움도 있을 리 없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옛것은 그들의 인생에 지금껏 없었던 새것이다. 그것은 레트로이되 새것으로 받아들이고 즐긴다는 의미에서 뉴트로이거나 아예 뉴이다.

뉴트로의 의미가 무엇이든, 사람들은 왜 옛것을 지금 다시 들여다볼까. 골동품(骨董品)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오래된 진귀한 물건,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고 낡은 물건이다. 오래된 것의 오래되었다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래되어 진귀하고, 어떤 것은 오래되어 쓸모없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부여한 의미이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옛것은 진귀한 것이 된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시대의 새것이 된다.

맹자는 지금의 음악이 옛 음악과 같다고 하였다. 좋은 음악이 가진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람들의 성품도 옛날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화조산수도첩

위드다르마 편집실



백은배·유숙 필 화조산수도첩白殿培·劉淑 筆 花鳥山水圖帖
 조선 시대/세로 25.4cm, 가로 29.7cm/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조선 후기 화원 백은배(1820~?)가 그린 풍속화이다. 화첩에 속해 있는 그림으로, 이 그림 외에 ‘문자인연(文字因緣)’, ‘예림기관(藝林奇觀)’의 묵서 대자(大字)와 백은배가 그린 화조화, 유숙이 그린 인물화, ‘취화(淸華)’ 관서가 있는 인물화 등이 있다. 다양한 화목의 그림을 섞어 장황한 ‘잡화책’이 조선 말기에 유행하였는데, 그러한 유형의 화첩에 해당한다.

‘바둑두기’를 그린 백은배는 본관이 임천(林川), 자는 계성(季成), 호는 임당(琳塘) 또는 임당(林堂)이라고 하였다. 화원(畫員) 백민환(白敏煥)의 아들, 백준환(白俊煥)의 조카이며, 역시 화원이었던 이윤민(李潤民)의 외손자로 조선 말기 대표적인 화원 가문 출신이다. 산수, 인물, 영모를 잘 그렸고, 80세 이상 장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여, 안중식 등 근대기 화가들에 이어지는 위치를 점한다.

‘바둑두기’는 대국 중인 두 사람과 옆에서 이를 구경하는 한 사람을 그린 풍속화이다. 아무런 배경 없이 바둑판에 집중하고 있는 장면만을 그렸다. 얼굴을 살색으로 얹게 표현하고 이목구비와 수염 등을 가는 붓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대국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 생생하다.

왼쪽의 젊은이는 사방건을, 마주한 사람은 망건을 썼고 구경하는 사람은 상투관 차림인데, 복식 묘사 역시 꼼꼼하고 자세하다. 부채를 들고 담뱃대를 문 사람의 자세, 대국 중인 두 사람의 앉은 모습, 세 사람의 공간 관계 등이 명쾌하고 자연스러워, 보는 이에게 그림의 주제를 확실히 각인시키면서 화면에 몰입하도록 하는 숙달된 솜씨를 보인다.

달 구름 이고서
어슬렁 어슬렁

구름따라 한잎 두잎
사랑같은 노래 채운다

꽃 잠들고 새 잠든 밤에도
하얀 사연 가득 품고서

노래다
노래다

오늘 밤
반짝 거리는 자작나무
사이 사이로

달빛은
둥근 몸을 쉬는다.



Photo by Vlad Panov@Unsplash

흘러간 물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얼마 전, 예상치 못했던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전화번호도 바뀐 모양이다. 낯선 번호 너머에서 아주 오래 잊고 지냈던 후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저 기억하세요? 00이... 너무 오랜만이라... 잘 지내시지요? ...두서없는 후배의 말에 울음이 섞인다. 그렇지만 나는 혼연히 대답하지 못한다.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살갑게 안부를 챙기는 사이도 아니었고, 수년간 소식이 끊겼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후배가 얼마나 강박하고 독선적인지 ‘귀에 더께가 앉도록’ 들어왔던 터라 불편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선배,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선배를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 겪으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 선배 때문에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달 모임을 며칠 앞두고 회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후배를 제명하기로 했다면서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회원들이 다 원하는 일이니 단독방에서도 나가라고.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게 다 Y의 비방과 음해로 빚어

진 일이라는 얘기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영화를 보거나 산행을 하는 모임의 창립 멤버였던 후배가 자신의 추천으로 뒤늦게 합류한 Y에 의해 쫓겨나게 된 것이다. 파란은 컸다. 회원들이 다 원한다던 제명 건이 실상은 Y와 ‘죽고 못 사는’ 몇몇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수세에 몰린 그들이 탈퇴를 하고, 변질된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발을 빼고, 결국 그 격랑을 이겨내지 못한 채 모임이 깨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Y 선배가 그랬대요. 제가 걸 다르고 속 다른 인간이라고. 앞에서는 싹싹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을 모함하고 이간질한다고... 그러니 다들 믿었겠지요. 저도 예전에 Y 선배의 말을 듣고 선배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쯤에서 나는 후배의 말을 끊는다. 아아, Y! 굳이 듣지 않아도 안다.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온갖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지 않던가. 친구 하나 없는 나를 무한 희생과 인내로 품고 돌봐 주는 사람이 Y 자신인데 은혜도 모르는 철면피라고. 돌고 돌아 내 귀에까지 들려온 Y의 험담(생략할 수밖에 없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우정은 둘째 치고 수십 년 헛살았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었던 그때, 최근 후배가 생각했다는 것처럼 그제야 나도 Y의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았었다. Y에게 들은 대로 세상 물정 모르고, 게으르고, 무식하고,



Photo by Nguyễn Phúc@Unsplash

교양 없고, 있는 척 잘난 척, 안하무인에 허영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Y의 고향 친구 S와 J, H... 십중팔구 어쩌면 나도 그녀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지금 또다시, Y의 말대로 강박하고 독선적이라고 여겼던 후배 역시 그와는 다른 면모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로지만 후배도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생각의 오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 Y로부터 '귀에 더께가 앉도록' 후배에 대한 험담을 들은 몇몇 회원들이 자신을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매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 역시 Y에게 '귀에 더께가 앉도록' 들었던 대로 나를 잘못 판

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뒤돌아보게 됐다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코앞에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앓 뜨거워하면서 만물의 영장은 무슨?

오랜만에 Y를 생각한다. 왜 그랬을까, Y는? 장두노미藏頭露尾, 맹수에게 쫓기던 꿩이 덩굴 속에 머리는 겨우 감추었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격이다. 거짓으로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다.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결국은 외로워질 뿐인데 어쩌다가 남을 던고서라도 더 우뚝 서야 한다는 잘못된 욕망을 품게 되었을까. 그게 단지 Y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진실 운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모 가수의 거짓도 마찬가지다. 민생 없는 당쟁이 분분하고 진실을 덮기 위한 후안무치가 난무하는 정치권도 그에 못지않으니 이 모두가 우리 곁에 존재하는 수많은 Y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세월의 여과작용도 있었겠지만 나는 Y와의 결별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 착한 얼굴로, 그 다정한 눈빛으로 왜 그랬냐고 묻고도 싶지만 흘러간 물은 흘러보내면 그만이다. 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어서 이런저런 흥허물 덮어가며 알고도 모른 척 이해하고 용서했다라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아니다. 나는 번번이 Y의 진실을 의심했을 것이고, 진심을 내어주는 일도 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정은 무슨! 내 그릇이 그뿐이고 Y와의 인연도 거기까지이니 역지로 꺾맞출 필요가 없다. 지나친 합리화일 지도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를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라는 『법구경』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위로함에야.

내가 그랬듯이 Y로 인해 흑독한 열병을 앓고 있는 후배에게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 투자해야만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별이다.’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전한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의 상처도 크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킬 건 없다고.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시급한 건 범인 색출이 아니라 독화살을 빼내고 치료하는 일이라고.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칼날처럼 마침내 진실이 거짓의 탈을 벗겨낼 날이 올 것이라고. 겉은 금이지만 속은 납으로 된 무거운 옷을 입고 영원히 행진하는 별을 받아야 하는 위선자들의 말로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살바다라 왕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운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왕은 비둘기가 안쓰러워서 품 안에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둘기를 쫓던 매가 나타났습니다. 매는 비둘기는 자신의 먹이이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왕은 살생을 할 수 없다며 매에게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둘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비둘기는 살지만 나는 죽어요. 그러니 어서 비둘기를 내놓으십시오.”

비둘기를 살리자니 매가 죽고, 매를 살리자니 비둘기가 죽는 꼴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매는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살을 달라고 하



Photo by Sergi Ferrete@Unsplash

였습니다. 왕이 저울에 무게를 재어보니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베어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둘기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몸을 자꾸만 베어서 보았으나 계속 비둘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살을 베어낸 자리가 아프기가 한량없었으나 왕은 인자한 마음으로 참으며 비둘기를 살리기만 원하였으므로 신하에게 명하여 나를 죽여 골수를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매와 비둘기는 본래 제석천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도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왕의 보시가 제석천의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 중생의 고

통과 액난을 구제하여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함임을 알고 곧 상처를 낮게 한 것입니다.

『육도집경』 제1권 제2장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생명의 무게가 똑같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공장식 축사에서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좁은 틀에 갇혀 수명보다 일찍 목숨을 잃고, 때로는 실험실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고, 좁은 수족관에서 구경거리가 되다가 죽어가고, 생존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동물원에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온 비둘기와 왕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목숨이 갖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1계(戒)인 불살생(不殺生)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있는 유정중생(有情衆生)들의 고통도 사람의 고통과 마찬가지로인 것입니다.

이솝은 불자였을 듯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이솝우화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소크라테스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솝우화를 운문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솝우화를 수집하여 체계화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솝우화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 유언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솝우화를 수집하여 운문으로 기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솝이란 인물 자체이다. 14세기 프라누데스의 「이솝전」에 의하면 그는 척추장애인이었고, 천부의 기지, 해학, 화술로써 노예에서 해방되어 우화작가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이솝전기에는 가슴과 등에 큰 혹이 짐처럼 붙어있으며 키가 작다고 하였는데, 척추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소포스(Aisopos, B.C. 520-564) 즉 이솝(Aesop)은 기원전 6세기 초반 인물로 야도몬이라는 사모스섬 시민의 노예였다. 이솝은 그리스 고대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 것이다. 이솝은 장애 때문에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기에 의하면 이솝은 노동에 시달리는 동



Photo by Hoyoun Lee@Unsplash

료들을 위해 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의 이야기에는 약자의 승리나 당한 일을 되돌려주는 유쾌한 복수가 있어서 노예들을 힐링시키며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솝의 이야기가 재미있자 주인집 아이들이 이솝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이솝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여주인은 이솝에게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주인집에 놀러왔던 사람들도 이솝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찾아오는 바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이솝은 왕의 정치 고문이 된다.

노예에서 왕의 최측근이 된 것은 오롯이 그가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창작력이 있는데다 협상이나 논쟁에서 재치있는 우화로 상대방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류디아왕 크로이소스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불경죄로 델포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왕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자비실천의 자세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정쟁으로 희생을 당한 것이다.

‘사자와 생쥐’라는 이솝우화에서 생쥐는 약자이고, 사자는 강자이다. 강자가 약자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이솝은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생쥐가 지나가면서 사자의 발을 건드려 단잠을 깨웠을 때 사자는 생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려준 것은 자비를 베풀었다기보다 귀찮아서 그냥 돌려보낸 것인데 생쥐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사자는 가소롭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자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쥐가 나타나서 온몸을 결박한 그물을 작은 이빨로 잘라내어 구해주었다. 생쥐가 아니었으면 사자는 사냥꾼에게 꼼짝 없이 잡혀갈 신세였다. 사자가 생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생쥐는 은혜를 갚은 것이니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솝우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 정신, 그리고 강자든 약자든 불성을 가진 중생이기에 소중하다는 인간존중 사상, 인생사는 인연에 따라 돌고 돌아서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으니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솝은 불교를 접한 불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대중가요는 “내 속엔 내가 너 무도 많아 당신의 쉼 곳 없네.”라는 노랫말로 시작한다. 타인을 돕을 마음의 그릇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만 온통 가득한 것은 아닌지 나무터도 당장 살펴볼 일이다.

‘내가 너무도 많다’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 잡지의 앞선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애적 자비, 슬픔에 압도된 자비, 반동형성적 자비, 자기희생적 자비와 같은 유사자비들은 모두 ‘자기몰입적, 자기중심적 태도’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고통을 볼 때 ‘나라면 너무 비참할 텐데’ 하며 동정하거나,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며 상대의 고통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상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진정 필요로 할까’가 아니라 ‘나라면’이라는 자기중심으로 치우친 선부른 조언이나 오지랖을 배려나 자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Photo by Anthony Ievlev@Unsplash

고통받는 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동요된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자신에게 전이된 지도 모른 채, 그 고통을 자신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괴로워한다. 예를 들면, 힘들어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는 식으로 내부 귀인 하며 자책하는 것이다. 그 친구가 나의 말실수 때문에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지, 가족 문제로 표정이 안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과도한 자기몰입적 해석을 일삼곤 한다.

이처럼 우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이때 그 감정이나 행동이 일어난 원인을 잘못 연결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오귀인^{誤歸因}, misattribution이라 한다. 실제 현상은 '내 잘못', 혹은 '네 잘못'만으로 귀인 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원인들이 얽혀 만들어진 것이므로, 누구의 탓으로, 무엇 하나로만 귀인 하는 것은 대개 오귀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타인과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자기몰입적 해석과 같은 오귀인을 벗어나 건강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특히 정서전염의 과정처럼 그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 관념적 원인 찾기는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 것과 같다. 나 자신이나 상대에게서 고통이 느껴질 때, 고통이 나쁘다는 평가를 내려놓고, 다만 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에 마음 챙김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실재를 온전히 체험하면 고통이라는 정서적, 신체적 각성 상태는 3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관념으로만 처리된 고통은 몇 시간이고 몇 달이고 오래 지속될 뿐 아니라 체험될 때까지 무수히 반복된다.

한편, 그 고통에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붙이고 바라볼 때, 고통의 감각을 판단 없이 온전하게 경험하기란 어렵다. ‘나의 것, 너의 것’으로 분별하기보다 하나의 흘러가는 현상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도 나도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우리의 고통이 함께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평온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활성화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편안한 미소를 통해 긍정적 정서 상태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

신영복 선생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했다. 거창하게 누군가를 돕고, 문제

를 해결해주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와 함께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대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불리 조언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낼 심지를 가진 온전한 존재임을 믿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도 꼭 도움을 주고 싶다면 침묵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 따뜻하고 순수한 주의와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는 편이 낫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나아가 내가 아는 사람,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까지 진심이 담긴 자비의 염원을 더 자주 보내며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평온하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최종희

텔레파시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사람들은 2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초월적 감각 능력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두 눈이 아닌 내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과 부처님의 불상이나 불화의 광배는 제3의 눈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을 차크라 수행이라고 한다.

제3의 눈은 주로 인도 철학과 불교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내면적 통찰력과 영적 인식을 상징한다. 제3의 눈은 보통 이마 중앙, 즉 '아즈나 차크라'에 위치한다고 여겨지며, 이곳은 직관력과 내면의 지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3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각을 넘어선, 더 깊은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세상의 겉모습을 넘어서, 숨겨진 의미와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서양에는 제3의 눈과 비슷한 개념으로 텔레파시가 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매트릭스', '루시', '리미트리스'에는 뇌의 특

정 영역을 깨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텔레파시는 초능력의 일종으로 도구 및 언어, 몸짓, 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감지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텔레파시는 다른 초능력들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각도 뉴런을 통한 전기적 정보이다. 이 전기 신호를 외부에서 증폭시킬 수 있고 수신 및 해석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텔레파시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텔레파시는 과거에는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텔레파시란 말 그대로 '마음의 전달'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매체 없이도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뇌파 인식, 신호 전송, 신호 해석, 보안 등의 핵심 요소들을 통해 텔레파시가 작동한다.

최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끄는 뇌신경 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임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럴링크'가 공개한 영상에는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된 놀런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모습이 담겨 화제가 됐다. 아르보가 컴퓨터 커서를 움직인 건 뉴럴링크가 그의 뇌에



Photo by Jon Tyson@Unsplash

이식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칩 '텔레파시'에서 뇌 전기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했기 때문이다.

어느 과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과거에 텔레파시 능력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며 살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의 발달로 텔레파시 능력이 자연스럽게 퇴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 그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수행에 의해 텔레파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텔레파시는 일종의 마음의 언어이다.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는 수학, 과학, 철학 등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라면, 텔레파시는 영적 능력에 기반을 둔 믿음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통하게 되면 쉽게 이해되지 않던 세계가 수학과 같은 특정한 언어를 통해 이해될 때처럼 어떤 찰나의 아름다움이 반짝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상대방에게 텔레파시를 보낸다. 텔레파시와 기도는 그 내용이 무언가에 대한 서원과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 남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얼마를 써넣을 수 있는가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유한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다. 어느 날 선각자가 나타나서 ‘너는 유한이가 아니다. 너는 무아(無我)다’라고 하였다. 유한이는 깜짝 놀랐다. 내가 유한이가 아니라고? 내가 없다고? 내가 허무라고? 유한이는 기운이 쏙 빠져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그놈은 무언가 삐끗한 것이다. 유한이 아니라는 것이 곧 제로라는 뜻인가. 어쩌서 무한은 아니고 제로인가. 사형수에게 너는 사형수가 아니야 한다면 그만 끝이냐고 깜짝 놀랄까. 너는 사형수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일 것이다. 그런데 ‘유한이’라는 이름에 중독된 그놈은 ‘유한이’가 아니면 곧 끝장인 줄 알고 있었다. 유한 딱지를 떼어내면 그대로 무한인 것을, 참으로 어리석은 노릇이다. 내가 바로 그 ‘유한이’라는 놈이었다.

존재계는 중중연기하며 끝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홀로 떨어져 나온 고정된 실체란, 아(我)란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이자 스승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존재가 허망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이 존재는 어떤 이름으로도



Photo by Stephanie Klepacki@Unsplash

고정되고 한정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연기라는 존재법칙을 발견한 부처님은 죽음을 벗어나 해탈하였다.

스승이 말씀하신다. 석가모니 출현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

‘침묵^{沈默}’의 진정한 가르침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가. 그것은 유한을 무한으로 바꾼 것이다. 의상대사가 말씀하신다. 우보의생만허공^{雨寶益生滿虛空}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 감로의 비가 허공 가득 내리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 하늘에서 백지수표가 떨어지는데 사람은 제 주저만큼 액수를 써 넣는다.

이 존재는 ‘나’라는 이름에 갇힌 구차한 물건이 아니다. 모든 ‘너’ 또한 그러하다. 꽃줄기에 무수한 이슬이 매달렸다. 이슬이 허망한가. 허망하다면 ‘이슬’이라는 그 이름이 허망한 것이다. 햇빛이라는 인^因이 더해지면 이슬은 이슬의 형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상태로 이 존재계를 주유할 것이다. 스스로를 그 이름과 동일시하는 것은 애써 단두대에 올라서려고 기를 쓰는 것과 똑같다. ‘나’도, ‘이슬’도 연기적 질서에 따라 드러난 무한우주의 나 투심이다.

인간세가 붙여놓은 이름의 칸막이들을 제쳐보라. 거기에는 ‘무엇’이라는 정법^{定法}으로 수 없는 무한의 씹씹이 있을 뿐이다. 백지수표에 얼마를 써넣을 수 있는가. 이놈은 ‘유한이’가 아니다. 그 어떤 이름에도 갇힐 수 없는 무한정자^{無限定者}이다. 본래 걸림 없는 무한의식이다. 깨우친 것을 거듭하며 그 느낌을 거듭 음미한다.

천수종종 심수무성 정수유심^{淺水淙淙 深水無聲 靜水流深}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얕은 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 ‘도량^{度量}이 깊고 심지^{心志}가 굳은 사람은 늘 언행^{言行}이 무겁고 조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물은 깊을수록 고요히 흐르고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인품이 깊고 넓어서 말 한마디나 행동거지 하나에도 신중하며 언행의 무겁기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와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萬物}을 길러주고 키워주기도 하지만 결코 자신의 공^公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직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속성을 지녀 늘 겸손의 철학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목청을 높이는 세상이지만 진실로 덕성을 갖춘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말에 ‘짚는 개는 물지 않으며, 물려는 개는 결코 짚



Photo by Julia Igosheva@Unsplash

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대인^{大人}은 허세를 부리지도 않거니와 또한 시비를 걸어 상대방을 굴복하게 하거나, 아예 싸움을 걸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속이 좁은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지나쳐서 허세만이 넘쳐날 뿐이지만, 반면에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삶의 이치를 알고 있어도 이를 모른 척하며 또한 자신의 재주를 과시해서 남에게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떤 가정에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고 조상 대대로 집안의 가보처럼 내려온 소중한 회중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게 되자,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귀중한 집안의 보물이라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엄청난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 집안을 다 뒤져봤으나 찾을 길이 없게 되자 결국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마 네가 잃은 시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준 후 침착하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집안에 모든 전원까지 다 끈 채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이 시계는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 주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 흥흥하고 시끄러울 때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법도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면 평소 들리지 않던 소리도 들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혹여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 같은 것들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지혜도 배우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용한 침묵이 큰 목소리보다 오히려 참된 가치와 위대성을 지닌 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배울 수도 있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옛말에 ‘침묵沈黙이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란 것이 긴 인내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각 분야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나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는 누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며 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3년이 밖에 걸리지 않지만, 침묵은 무려 60년이 걸려도 다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겸손을 갖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침묵이 혹시 지금 필요한 때는 아닌가요?

좋은 인연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좋은 인연

덕신 스님 작사 / 이종만 작곡

Andante ♩ = 76

지 나 가다 웃
우 리 - 가 원

6 깃 - 을 스 치 기 만 하 여 도 운 명 보 다 더 깊 은 인
하 는 건 좋 은 인 연 이 지 요 처 음 에 는 누 구 나 남

11 연 이 라 하 는 데 이 렇 게 인 - 연 되 어 어 렵 마 나 고 마 운
남 인 줄 알 지 만 많 은 - 사 람 가 운 데 이 - 렇 게 만 난 것

16 지 얼 굴 한 번 더 보 고 손 한 번 더 잡 아 봐 요 아
은 알 고 보 면 우 리 는 남 이 아 닌 것 이 아 함 께

21 김 없 이 후 회 없 이 서 로 오 - 사 랑 하 면 서 함 께 사 는 동 안
살 아 가 면 서 - - 맺 어 - - 지 는 인 연 들 고 운 것 도 정 이

26 에 느 으 께 - 보 는 행 복 이 아 - 무 리 생 - 각 하 고 생 - 각
요 미 운 - - 것 도 정 이 니 바 늘 가 면 실 - 가 뚝 이 모 - 르

31 해 - 보 아 도 고 이 간 직 하 고 큰 좋 은 인 연 이 지
착 하 지 않 고 서 로 마 음 쓴 다 면 좋 은 인 연 이 지

36 1. 2.
요

요 좋 은 인 연 이 지 요 -

Copyright © 2014. 12. 19. 묘원화

이종만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어 곡을 고르다가 ‘좋은 인연’이 <좋은 벗 풍경 소리> 36집에 실린 찬불동요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너와 나’ ‘길 떠나자’ ‘오늘은 좋은 날’ 같은 여러 합창곡들이 풍경 소리를 통해 소개된 동요이다.

1980년대 초반 포크뮤지션을 꿈꾸며 무명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공부하던 이종만 선생님은 조계사에서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던 친구의 부탁으로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 참여할 어린이 합주단의 공연 지도를 맡아 대성공을 거두고 천진 불자들의 사랑과 스님들의 관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후 ‘뮤지션’으로 1집 앨범이 성공했지만 2집, 3집의 연이은 실패로 심신이 모두 황폐해졌을 무렵 조계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선생님의 노래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말에 인생길이 바뀌었다.

1995년 찬불동요를 편찬하고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 소리’를 만들었지만 당시의 교계 정서로는 운영과 유지가 쉽지 않아 2000년 10집으로 끝내려던 차에 운문사 스님, 지현 스님, 덕신 스님 등등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시던 많은 분들이 풍경소리의 후원과 소임을 자청해 폐쇄 위기를 넘기고, 2023년 2월 55집 『향천의 노래』를 발표했다. 향천은 향기로운 물이 솟는 샘처럼 중생들에게 감로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의 이종만 선생님의 법명이다. 법명처럼 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족적이 그렇게 살았노라 보여준다.

태장계 만다라 불단의 문양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총지사 서원당의 본존 ‘옴마니반메훴’의 오른쪽에는 태장계 만다라가 있습니다. 그 만다라 불단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① 아축불

아축불은 대일여래의 동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보리심^{菩提心}을 관장하며 그 보리심의 덕성^{德性}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아축불은 ‘보리심이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축불의 존명은 동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축불을 ‘부동불^{不動佛}’ 또는 ‘무동불^{無動佛}’이라고도 합니다. 즉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수행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처님입니다.

인간의 내외 장애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동요됨이 없는 굳건한 보리심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금강견고신 아축불’이라 합니다. 아축불의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옆으로 놓인 오고저가 있고, 그 오고저 위에는 다른 오고저를 세워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요가 없는 존상’임을 나타내어 ‘견고한 보리심

태장계 만다라 불단모양



① ② ③ ④

으로 번뇌의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놓인 오고저는 중생들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유^{本有}의 보리심을 나타냅니다.

② 보생불

두 번째는 보생불의 삼매야입니다. 보생불은 대일여래의 남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능히 일체 중생의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시키는 부처님’입니다. 즉 ‘수행의 복덕’을 상징하는 부처님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복덕을 모아서 여래의 몸을 장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생여래를 ‘공덕장엄취신 보생불’이라 합니다. 이 보배장엄으로 중생의 원을 만족시키고 불타^{佛陀}의 계위^{階位}에 오르게끔 관정을 주기 때문에 ‘관정지불^{灌頂智佛}’이라고도 합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외씨와 같은 세 개의 구슬이 모인 모양입니다.

그 의미는 ‘수행의 덕을 충족시키며, 그 복덕이 널리 모든 중생에게 미치도록 하는 작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작용력이 여의보주의 구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여의보주의 구슬은 바로 의복, 감로, 음악, 보궁전 등의 미묘한 것과 중생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③ 아미타불

세 번째는 아미타불의 삼매야입니다. 아미타불은 대일여래의 서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고뇌와 의혹으로부터 구제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의 존명(尊名)은 영원한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부처님은 ‘한량없는 광명의 부처, 한량없는 생명의 부처이며,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무변한 ‘증보리심(證菩提心)의 덕’을 나타내는 부처님으로, 자비지혜로써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일체중생의 구제를 염원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수용지혜신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옆으로 눕힌 오고저를 올리고, 그 위에 독고저를 올려 세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생사윤회의 인연과 번뇌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해탈], 본성청정의 열반을 증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④ 불공성취불

네 번째는 불공성취불의 삼매야입니다. 불공성취불은 대일여래의 북쪽에 있는 부처님으로, ‘중생교화의 사업을 능히 성취케 하는 부처님’입니다. 불공성취불의 존명(尊名)은 ‘헛되지 않고 확실하게 부처의 작용력·활동력을 성취케 하는 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체의 번뇌를 단멸하고 중생교화의 사업을 원만히 성취해서 헛됨이 없게 하는 ‘불공성취(不空成就)’의 묘용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작변화신 불공성취불’이라고 합니다. 불공성취불은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리하여 마음에 어떠한 공포도 없는 자유 활동을 전개하는 부처님입니다. 그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오고저를 옆으로 눕어 올리고, 그 위에 갈마저(羯磨杵)를 올려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일체중생의 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놓인 오고저에서 좌우의 오고(五結)는 부처와 중생이 본래 일체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9. 혼자서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잘 넘어지는 아이

놀이를 하다가 화장실로 이동한다. 뛰어서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놀이터에 가는 길에 인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부모는 아이에게 앞을 보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다. 손을 잡아주어도 자신의 다리(발)에 걸려 넘어진다.



● 원인

- 시각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이동하다가 물체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
-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 척추와 다리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 월령에 따른 근력 발달, 운동성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느린 경우
- 근긴장도가 낮은 경우

● 지도방법

- 주의를 살피며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야기를 해준다.
- 야외 활동 시 신발의 재질이 두꺼운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근육 발달을 위해 복부 운동 및 전신 안정화 운동 놀이를 제공한다.

운동 놀이	놀이 방법
윗몸 일으키기	바닥에 등을 대고 넓게 한 뒤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놀이한다.
누워서 공차기	아이와 함께 누워서 공을 발로 차는 동작을 하며 놀이한다.
무릎서기 자세	다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들고 상체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고 소근육 놀이(색칠하기), 놀잇감 가지고 놀기 등을 한다.
놀이터	사다리나 그물 기어오르기를 한다.
야외활동	등산이나 계단 운동을 한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제기차기 Traditional Kicking Game



병정놀이 War Games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l

추억의 놀이

놀이는 유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모습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일상이던 놀이가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체험행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쉽다.



닭싸움 Korean Cockfighting



썰매타기 Sledding

지난호 정답

관	자	재	보	살		운	전	면	허
람				비	누	칠			허
열	무	김	치			기	정	사	실
차		말		장	뇌	삼			실
	웅	이		삼			부	부	
성			명	이	나	물		메	
불	가	침		사		꼬	부	랑	길
	는		공		튼		스		라
격	세	지	감		보	일	러		잡
	월		대	혼	잡		기		이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②㉔		㉕
				③					
④	㉖		㉗						
					⑤		⑥		
	⑦								
㉘							⑧㉙		
		㉚							
⑨			㉛					⑩	㉜
				⑩					
⑫							⑬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망자의 기일 등에 불사(佛事)를 봉행하는 법회
- ②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은 팔구체 향가
- ③ 앞은 대개 손바닥 모양으로 깊이 갈라져 있고, 가을에 아름답게 물드는 나무
- ④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구나. 이상의 OO
- ⑤ 흥사단을 건립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OO 000 선생
- ⑥ 성냥의 날날을 이르는 말
- ⑦ 한데 쌓여 있거나 모여 있는 사물의 더미
- ⑧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영부인'의 방언
- ⑨ 태풍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맑게 갠 무풍지대, '허리케인의 눈'이라고도 불림
- ⑩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관용적으로 쓰이는 글귀
- ⑪ 수업이나 모임 따위에 나가 참석함
- ⑫ 가을철에 부는 상쾌하고 선선한 바람
- ⑬ 지표면의 암석이 상온, 상압에서 풍화 작용으로 분해, 이동되어 지구 표면에 쌓이는 작용으로 생긴 암석

세로 열쇠

- ㉓ 음력 8월 15일 명절.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 음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 ㉒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용품, 불구라고도 함
- ㉑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
- ㉔ 사원에서 일을 맡아 처리해주는 남성을 높여 부르는 말
- ㉕ 각각의 집집마다
- ㉖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 ㉗ 낮 시간 외에 밤에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함
- ㉘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 ㉙ 서리를 맞아 가며 자란다고 하여 명칭이 붙은 검은 겉은 검고 속은 파란 콩
- ㉚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 ㉛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도무지 되지 않음
- ㉜ 눈 멍치로 만든 사람 형상
- ㉕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국보 제24호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워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워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남 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유재꽃 이수영 이안성 이혜성 자선화 정건호
정휴영 총지화 한철수 성화사 신정희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창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송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재우 김진문 이윤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Photo by Ako Tampo@Unsplash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주인공의 자기 소개는 일종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앞뒤 어느 쪽에서 읽어도 같은 어구나 문장을 회문(回文, palindrome)이라고 하는데, 생고생, 실형실, 이쁜이, 일요일, 복불복, 트로트 끝이 없다. 영어에도 있다. civic, noon, level, radar, kayak 등 마찬가지다. 거꾸로 하면 다른 뜻이 되는 단어도 있는데 desserts(디저트)는 stressed(스트레스를 받는), live(살다)는 evil(사악한) 등 생각보다 많다.

우리말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된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

쓰레기가 다 쏟아진다. 웃음기와 함께 더위 싹 날려 주는 아주 옛날 유머였습니다. 끝!

발행일 총기 53(2024)년 9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9월호



부르고 또 부르는 끊임없는 염승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도 없네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훔
울리는 술 속에 적멸위락_{寂滅爲樂}이로다

- 환당 대중사 범어록 중에서 -